"禪·관광 접목해 제주를 마음산업 성지로"

제주 원명선원 8월 25일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국내외 전문가 참여해 '눈길'
트래킹 등 연계 필요성 주장
세계마음연구소 설립 제안도
"제주를 무진 행복의 땅으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주 원명선원은 8월 25일 '21세기 세계 마음산업 현황과 제주도 관광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참선을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 원명선원(선원장 대효)은 8월 25일 제주 건입동 김만덕기념관 강당에서 '21세기 세계 마음산업 현황과 제주도 관광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국제학술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불교 전통 참선 수행체험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논의했다.

데이비드 A. 메이슨(David A. Mason) 세종대 교수가 '북미 마음산업과 한국 마음산업 발전을 위한 몇 가지 권고'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의 관광산업으로서의 마음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의 마음산업 발전 제안을 내놨다.

메이슨 교수는 한국 백두대간과 그 안에 있는 산사들을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백두대간 남반부 하이킹 코스 5㎞이내에 100여 개가 넘는 종교 유적이 있고, 이들 사찰 중 일부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통한 순례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메이슨 교수는 △사찰 명상 안거프로그램을 하이킹·트레킹과 연계 △서구 명상센터 경영 벤치마킹 △영적 체험·순례로서 명상 안거프로그램 홍보 △'한국적' 콘텐츠를 포함 등을 제안했다.

메이슨 교수는 "한국불교만이 가지는 특별한 정체성을 만들어 한국불교를 체계적으로 경험하고 조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홍보와 불교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확인받아 명확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 마음산업 현황과 관광 정책의 방향'을 발표한 고상현 박사(동국대)는 한국·제주의 마음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제주 마음산업 발전 방안을 관광정책의 입장에서 제안했다.

고 박사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참선 명상과 관련된 단체는 △(재)참선재단 △남국선원 △(사)백제힐링센터 △(사)해공명상센터 △(사)제주국제명상센터 △제주힐링센터 △제주선(仙)문화진흥원 등 7곳이다.

고 박사는 "제주에서 마음산업과 관련된 곳이 적지 않고, 외국의 수행처에 비해 자연환경이 뛰어나 더 발전된 수행센터와 마음산업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마음산업은 관광산업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는 현 상황이 문제라는 게 고 박사의 지적이다. 고 박사는 "마음산업은 정부가 선정한 웰니스 관광 33곳을 제외하고는 관광산업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요한 관광자원이지만 관광정책의 사각지대"라고 꼬집었다.

이어 "마음산업의 활성화는 기존 관광산업의 분류와 범주, 개념을 확장시켜야 가능할 것"이라며 "사찰 등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도 관광정책적 지원과 통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 박사는 민관거버넌스 형식의 선원인 세계마음센터(가칭)와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세계마음연구소(가칭)의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제주도가 전 세계의 정신문화를 선도해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모토 아래 세계를 하나로 묶는 세계일화로 상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제주 원명선원장 대효 스님의 기조 강연을 비롯해 장옥령 대만 국제불교연합 주석이 '4차 산업으로서의 제주 관광 : 선 수행의 경제 산업과의 연결'을, 임근동 한국외대 교수가 '인도의 요가와 명상산업' 주제 논문을 각각 발표했다.

"법당 도와 파면 부당"

신학大 교수 1심 '파면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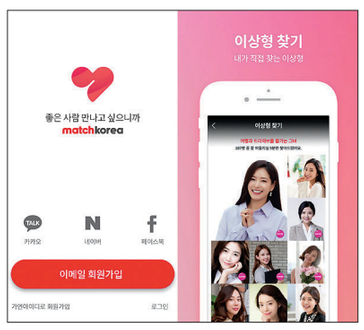
훼불행위를 저지른 개신교신자의 행동을 대신 사과하고, 복구비용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사진〉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손 교수가 서울기독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파면을 취소하고, 파면 시점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30일 판결했다.

손 교수는 2016년 1월 경북 김천 개운사에서 개신교신자로 알려진 60대 남성이 법당 내 불상과 법구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자, SNS상에서 대신 사과의 뜻을 밝히고 복구 모연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서울기독대 이사회는 손 교수의 행동이 그리스도교회협의회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2017년 2월 파면했다. 그러자 손 교수는 부당징계를 주장하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윤호섭 기자**

종교로 찾아보는 내 이상형은?

소셜 데이팅 앱 '매치코리아' 시범운영
가연, "종교계 저출산 극복 국민운동 일환"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신뢰도를 높인 무료 데이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연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와 체결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 협약의 일환으로, 소셜 데이팅 앱 '매치코리아' 시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월 28일 밝혔다. 해당 앱은 이용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한 데이트를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됐다.

매치코리아는 미혼 성인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결혼정보회사의 신원인증시스템을 기반으로 가입과정서 허위 프로필을 방지하고 있다. 이후 출석체크, 데이트 평가 등 앱 활동으로 적립된 캔디를 이용해 결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소셜데이팅 앱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등장하면서 가연은 관련 문제점을 보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여러 기술을 접목한 기능들을 앱에 적용했다.

먼저 상대 이성에 대한 신뢰도와 데이트 관련 안전도 등을 높였다. 인터넷은행이 사용하는 스크래핑 기술을 적용해 학력, 결혼이력, 직장 등을 공문서로 인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데이트 장소로 이동할 때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데이트 폭력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신고가 가능한 '엔젤세이퍼' 기능,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심번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 다양한 방식의 매칭 서비스도 있다. 매치코리아는 같은 종교를 가진 이성을 우선 추천하는 '종교매칭'을 비롯해 '추천매칭' '주제별 이상형 찾기' '근거리 매칭' 등 앱 기능으로 자신과 어울리는 상대를 찾도록 돕는다.

가연 관계자는 "앱을 통해 진지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애 활성화와 혼인 성사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싱가포르서도 '대박' 난 템플스테이

불교문화사업단, 싱가포르 여행박람회서 '성황' 이뤄



나타스 홀리데이에 참여해 템플스테이를 홍보하고 있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한국불교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템플스테이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높여가는 가운데 싱가포르 최대 규모 여행박람회서도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지난 8월 17~19일 싱가포르 여행박람회인 '2018 나타스 홀리데이(NATAS Holidays 2018)에서 템플스테이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나타스 홀리데이는 약 12만 명이 참가하는 싱가포르 최대 여행박람회로, 현지 여행사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 여행관련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다.

문화사업단은 이번 박람회에서 템플스테이 참여와 여행상품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개별참가자와 여행관계자들을 1대1 상담을 실시했다. 아울러 부채 만들기, 컵받침 만들기, 연꽃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4000여 명의 참가자가 부스를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

템플스테이 체험에 참가한 키엣(Kiat) 씨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한국사찰은 산속에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고, 숙박과 체험도 가능해 매력적이다. 한국에 가게 되면 템플스테이를 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화사업단에 따르면 템플스테이 홍보부스에 방문한 참가자들은 싱가포르 사원과는 다른 한국사찰과 템플스테이에 흥미를 보였으며, 단체 패키지여행보다는 개별여행으로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문화사업단은 한국관광공사·지자체와 함께 동남아시아 영어권 국가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체험인 템플스테이를 소개하고, 대상별 맞춤형 여행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사회노동위 베트남전 희생자 추모제

베트남 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9000여 명을 기리는 추모제가 치러진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9월 9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문화공연장서 '베트남 전쟁 한국군에 의한 양민 희생자 추모제'를 봉행한다. 이날 베트남 불교협회 의식부 부회장 틱 푸옥 치(Thich Phuoc Tri) 스님을 비롯, 사노위 소속 스님들과 주한 베트남 다문화가족, 유학생, 노동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모제는 조계종 사회부장 진각 스님의 추모사, 틱 푸옥 치 스님 법문, 추모의식 및 회심곡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사노위는 "베트남 전쟁으로 한국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들을 향한 반성과 참회의 마음을 담아 고인들의 영혼을 위로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군 성노예제, 제주 4.3 희생자 기도회 및 추모제 등을 봉행해온 사노위는 이번 추모제에 이어 2019년 베트남 현지서 추모 및 위령제를 봉행할 계획이다. **김지원 기자**

착한 가격 높은 퀄리티의 2019년 불교카렌다 품질이 확실히 다르다!!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으로 카렌다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삼보불교카렌다 임시 할인가 보급 단행
500부 이상 6절 1400원 12절 1100원 보급기간 2018.8.16~10.15

6절 (305×306)	정가 1,800원	1,4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6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500원 2,000부 주문시 1,300원
12절 (255×260)	정가 1,600원	1,1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3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200원 2,000부 주문시 1,000원
미니스프링 (90×98)	정가 800원	할인가 600원
미니 수첩 (90×130)	정가 1,000원	할인가 700원
비닐캡 (90×160)	정가 800원	할인가 400원
탁상카렌다 (260×190)	정가 2,500원	할인가 1,800원(금박인쇄)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 보는 법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래 eBook 바로보기를 클릭
삼보불교 카렌다 DONGJIN SAMBO BUDDHISM CALENDAR 삼보불교 불교카렌다 불교한수막 불교인쇄물 기타불교용품


삼보 2019년 불교카렌다 카다로그
새창에서 eBook 바로보기
바로보기를 클릭하시면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삼보불교카렌다 T. (031) 732-9905 F. (031) 732-8972
www.samboca.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로그를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카다로그나 샘플 발송을 요청하시면 보내드겠습니다.

동승의 행복
지혜동자
연꽃향기
동승이야기
민족의 산하
법음이 깃든 산사
위 카렌다 외에도 총16종의 카렌다가 있습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 미소 / 우리말로 풀어 쓴 반야심경 / 세계불교 명찰 / 심우도 사구게 / 관음응신도 / 운봉스님의 달마도 / 산사에 피는 야생화